

05

겨레말큰사전 누리판 제27호

■ 겨레말이 만난 사람



‘보리 국어사전’ 윤구병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사업회)는 보리 국어사전을 기획 · 감수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책 발간에 힘쓰고 계신 윤구병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새로 찾은 겨레말



집난이

백석의 시 《旌門村(정문촌)》의 한 구절이다. "정문집 가난이"의 '가난이'는 함경도 사투리로, 한자어 '家(가)'와 '난이[나-+ㄴ-+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그 말뿌리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가난이'는 '집을 떠난 사람' ...

■ 겨레말큰사전 편찬 현장

세대주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남북 공동회의에 가기 전 북측 선생님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해서 내심 걱정을 많이 했다. 억양도 다르고 어떤 경우 어휘도 다르니 당연한 일일 것이다...

■ 겨레말 우체통

손으로 쓰는 일기가 일기다

나는 몇 년 전부터 학급 아이들과는 돌림일기를, 학교 교사들과는 교단일기를 쓰고 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동료 교사들의 마음을 읽고 서로 어루만지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 겨레말 소식

한컴 오피스 2010, 편찬사업회 지원

편찬사업회는 편찬 연구 및 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한컴오피스 2010'을 (주)한글과컴퓨터(대표 김영익, 이하 한컴)로부터 지원 받았다.

■ 겨레말 동영상



마음이 머무는 정원 '지수화풍(地水花風)'은 《겨레말큰사전》과 함께 합니다.

지수화풍 꽃집(대표: 윤영미) - 5호선 공덕전철역 / 전화 02-714-0581

“통일 지향적 아이들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사업회)는 보리 국어사전을 기획·감수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책 발간에 힘쓰고 계신 윤구병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윤구병 선생님하면 농부 철학자, 변산공동체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요. 1995년 교수자리를 내놓고 전북 부안의 변산으로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셨다는데 어떤 계기로 어린이 <보리 국어사전>을 기획하신건가요?

1983년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가 전국단체로 결성되면서 이오덕선생님의 추천으로 대학교수로서 최초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초등 국어사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1980년 후반 기획실로 있던 보리출판사를 출판사로 등록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쯤 보리출판사가 사전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면서 비로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습니다. 또한 사전 편찬팀을 '토박이 출판사'라는 사전만 만드는 출판사를 독립시켜 편찬실을 꾸려 5년 정도 계획으로 보리 국어사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북의 다른 체제와 문화 차이를 두드러지게 어느 한편을 들어 표현하는 말은 죄다 걸러내었습니다.”

보리 국어사전은 기존의 텍스트 위주의 <어린이 국어사전>과 눈으로 봐도 확연히 다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 국어사전>의 4만여 개의 단어에는 7차까지 개정된 초등학교 교과서의 단어들을 쉽게 풀이 하여 넣었습니다. 또한 일본어나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시키고 쉬운 토박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입장'이라는 말을 '처지'라는 우리말로 바꾸어 실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의 다른 체제와 문화 차이를 두드러지게 어느 한편을 들어 표현하는 말은 죄다 걸러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통일된 세상일 것이고,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더라도 상대방의 체제에 대한 반감이나 비판을 갖지 않도록 남북 어린이들이 서로 만나서 소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통일 지향적 아이들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보리 국어사전>의 2400점이 넘는 세밀화 작업을 위해 특히 생명체와 연관된 부분은 정확한 삽화를 찾기 위해 전국에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세밀화 화가들을 길러내는데 보리출판사가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 윤구병 선생님

<보리 국어사전> 편찬 시 올림말 작업에 공을 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만 5천의 올림말 중 800여 개 북녘의 올림말이 수록되어 남북의 어린이가 함께 볼 수 있는 사전인데요. 북녘말 올림말 선정 작업과 집필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 국어사전>에 올려져 있는 북녘말은 남녘에서는 쓰지 않는 북녘말이 800여 개이고, 남북에서 달리 사용하는 말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말들을 사전에 실었습니다.

북녘말 올림말 작업은 북녘의 <조선말대사전>에서 도움을 받아 사전에 올림말을 뽑고 풀이 하였습니다. <조선말대사전>은 인민들이 두루 볼 수 있도록 쉽게 풀이하는데 신경을 많이 쓴 사전입니다. 저희는 시골 70-80대 노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풀이말과 용례를 써서 쉬운 사전을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맞아 조선말대사전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선말대사전》으로 북녘말을 작업하실 때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요?

《조선말대사전》으로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어른들의 시각으로 사전이 반영되어 있고, 남녘에서 보면 편견을 가질 수 있는 풀이말과 용례로 되어 있어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쪽의 이념적 색채가 강한 것은 상대에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남과 북이 오랫동안 함께 살아야 할 상대가 아닌 적대시 하는 쪽으로 오랫동안 교육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순화시키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할 때 들쳐보는 사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눈으로 즐겁게 보고
새로운 낱말을 익히는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보리 국어사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400여 점의 세밀화로 된 삽화라고 생각합니다.

《겨레말큰사전》도 세밀화 작업을 하고 있어 특히 더 관심이 가는데요. 세밀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리 국어사전>의 세밀화 작업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생명체'와 '남북의 민족유산' 중심으로 작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군함'을 예로 들면 세밀하게 '포탄'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빼고 평화지향적인 것 위주로 그렸습니다.

세밀화 작업은 남북이 당연히 함께 하려고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북녘에서도 초기에는 세밀화 작업의 중요성을 알고 작업이 잘 진행되었습니다만 재정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부득이하게 남녘에서만 세밀화 작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세밀화 작업은 단순한 세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과 연관된 문화와 남북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동식물을 중심으로 현재까지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필요할 때 들쳐보는 사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눈으로 즐겁게 보고 새로운 낱말을 익히는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왼쪽) 마디꽃 : 안경자그림,
(오른쪽) 각시붕어 : 박소정그림
* 보리 국어사전 세밀화 중에서

선생님은 남북어를 함께 수록한 사전을 만드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이 함께 만들고 있는 《겨레말큰사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리 국어사전>이 서로 편견 없이 정서적인 걸림 없이 하나가 된 겨레가 되자고 만든 사전이지만 반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단과 고저를 제대로 정확하게 표준화시켜 사전에 넣지 못한 것입니다. 각 지역의 발음을 모아서 장단과 고저를 표준화하는 것은 매우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 표준 음성으로 발음이 되어야 완전하게 문자로 옮길 수 있으므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겨레말큰사전》이 절반이나 진행 된 상태이므로 발음사전(성음사전)이 반영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음성이 문자로 손색없이 옮겨지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므로 가능하다면 《겨레말큰사전》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겨레말큰사전》 세밀화 작업과 관련하여 이미 그려져 있는 세밀화는 새로 그리지 말고 <보리 국어사전>에 나온 것을 쓰면 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밀화 관련하여 보리출판사와 협의하고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것이나 목록에 없는 것만 새로 그려서 《겨레말큰사전》에서 이용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구병

1943년 전남 함평 출생하여 '뿌리깊은 나무'의 초대 편집장, 충북대에서 철학을 가르치면서 어린이 그림책을 만들었다. 1995년 부안에 변산공동체를 세우고 변산공동체 교장선생님으로 아이들도 가르쳤다. 저서로는 <보리 국어사전>, <도토리 사계절 그림책>, <잡초는 없다> 등이 있다.

집난이

이길재/ 겨레말큰사전 새어휘팀장

기왓골에 배암이 푸르스름히 빛난 달밤이 있었다
아이들은 쪽재피¹⁾ 같이 먼 길을 돌았다

旌門집 {가난이는} 열다섯에
늙은 말꾼²⁾ 한테 시집을 갔겠다



백석의 시 《旌門村(정문촌)》의 한 구절이다. "정문집 가난이"의 '가난이'는 함경도 사투리로, 한자어 '家(가)'와 '난이[나+-ㄴ+-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그 말뿌리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가난이'는 '집을 떠난 사람' 곧 '시집간 딸'을 이르는 말이다. 북녘에서 간행된 <조선말대사전>에는 '집난이'라는 말이 실려 있는데, 이 또한 '집'과 '난이'가 결합된 것으로 '집을 난 사람' 곧 '가난이'가 되는 것이다.

사람됨이 서글서글하고 귀밑머리에 서리가 얹은 안주인은 나들이 온 {집난이를} 대하듯
복녀를 반갑게 맞았다. 《김보행: 봄눈이 내린다》
래일 내 가서 신신당책³⁾을 하여놓고 {집난이} 몸이 낫는 대로 인차(인제) 보내겠수다.
《리원길: 두루미 며느리》
안전하게 시집으로 돌아가는 {집난이를} 보내 놓고는 동네 젊은 장난꾼들이 말하는 것이었다.
《안수길: 북간도》

그러나 남측에서 간행된 사전에는 '시집간 딸'을 뜻하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다. 기껏해야 '출가외인' 정도의 말이 떠오르는데, 이는 가부장적 사회가 끌어낸 구시대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우리 겨레의 말에는 '가난이'와 '집난이'와 같이 '시집간 딸'을 정겹게 부르는 말이 있음에도 그것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표준어에 짓눌려 평북이나 함남 등지에서 쓰는 사투리 정도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백기완의 《장산곶매 이야기》의 한 대목을 들여다보자.

때는 이때다. {암난이들만} 빌란 법 있나. 예라, 승어가 뛰면 망둥이도 뛰다고. 장가 못간 {숫난이} 놈들도
줄줄이 닭을 메고 구월산으로 구월산으로 몰려들 가는데, 어떤 성깔 급한 놈은 자기집 장닭뿐이 아니고
남 의 집 닭까지 왕창 왕창 서리를 해다가 ... 《백기완: 장산곶매 이야기》

'암난이'는 '숫처녀', '숫난이'는 '숫총각'의 겨레말이다. <장산곶매 이야기>가 황해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이야기라고 해서 '암난이'와 '숫난이'를 '가난이'나 '집난이'와 마찬가지로 황해도 사람들만이 쓰는 사투리로 내몰고 말 것인가?

그 원장님은 너무 {고진이라서} 탈이랑께. 《조정래: 태백산맥》
학동어른이야 말로 가근방이 으뜸가는 {고진이} 아이가! 《겨레말큰사전》

'고진이'는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쓰이는 겨레말로 '심지가 곧고 고지식한 사람'을 뜻한다. '고진이'는 '곧은[곧+-은]'과 사람을 뜻을 더하는 '-이'가 결합된 '곧은이'가 '고든이'>'고진이'와 같은 소리의 변화를 겪은 겨레말이다. '고진이'와 뜻이 비슷한 표준어로는 '강항령'과 '목곧이'를 들 수 있는데, '강항령(強項令)'은 한자어이며, '목곧이'는 어인 일인지 '억지가 세어서 남에게 호락호락 굽히지 않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로 풀이되어 있다.

그러나 현옥의 {목곧이} 성미를 아는 까닭에, "내일 가보지요." 하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한설야: 황혼》

그렇다 '갓 난 사람'은 '갓난이', '막 난 사람'은 '막난이(>망나니)', '못난 사람'은 '못난이'인 것처럼 '집 난 사람'은 '집난이'이고, 어떤 일에 '질난(질난) 사람'은 '질난이(질꾼)'인 것이다. '가난이, 집난이, 암난이, 숫난이, 고진이, 질난이' 모두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겨레말이다!

노름에 지 아무리 밝은 {질난이래두} 그판에서 돈 불어 부재뒀단 소린 못 들었소. 《겨레말큰사전》

1) '쪽재비'의 평안도 사투리.
2) '말꾼'의 북녘말.
3) '신신당부'의 중국 동포들의 말.

세대주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김영덕/ 겨레말큰사전 선임연구원

《겨레말큰사전》 웹진에 원고를 써달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걱정을 많이 했다. 회의 다녀온 지 한참 돼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던 탓이다. 생각해 보니 벌써 1년이 지났던 것이다. 다행히 흐려진 기억을 더듬으니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다.

회의 가기 전에 편찬실 선생님들이 북측 선생님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해서 내심 걱정을 많이 했다. 억양도 다르고 어떤 경우 어휘도 다르니 당연한 일일 것이다. 대체적으로 새어휘팀 북측 선생님들의 얘기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어, 이게 무슨 뜻이지' 싶었던 게 두 가지 있었다.

회의 첫날, 지역어 조사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북측의 한 선생님이 '연유'라는 말씀을 하셨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유>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 《조선말대사전》을 열른 찾아보았다.

연유 '명' 연료로 쓰는 기름.
|| ~를 야껴쓰다. § [燃油]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측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이 단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사전만 놓고 본다면 남북 공히 쓰는 말로 보이나 실상 남측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어휘이다. 사전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생활 어휘의 차이를 발견한 셈이다.

그들은 령을 오르기 전에 물과 {연유를} 보충하려고 려관 앞에서 차를 세웠다. 《한웅빈: 운전사들》
저녁 으름이 골짜기에 스며들 무렵 {연유를} 만재한 유조 자동차 37호는 전선을 향해 떠났다.
《석윤기: 특수차 37호》

{연유} 공장에서는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 아스팔트 같은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 일탄톤 수출하였다니 오늘날 서울 거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밟고 다니는 아스팔트도 실은 대만에서 수입해 온 것이었다.
《정비석: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

《겨레말큰사전》에서 이용하는 말뭉치에서 찾은 용례이다. 위의 두 용례는 북측의 용례이고 마지막 용례는 남측의 용례이다. 정비석의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가 1963년도에 출판된 것이니 예전에는 쓰였던 어휘인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된 것 같다.



겨레말큰사전 제2차 공동 집필회의(2009.6.23~29) 새어휘팀 회의모습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마지막 회의가 끝나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북측의 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다. "세대주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남편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을 했다. 나의 예상은 맞았다. 북에서는 흔히 <세대주>라고 한다는 것이다. "한 세대를 대표하며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남북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쓰임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남측에서는 주로 서류에 적을 때나 쓰고 일상 대화에서는 사용할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다.

글쎄 그 집의 웬만한 빨래는 {세대주가} 다 하군 한다오. 《리라순: 행복의 무게》
록음이 잠간 낮아진 순간에야 채송순은 다급히 울리는 전화종소리를 가려들을 수 있었다. 그는 혹시 요즘 퇴근이 늦어지는 {세대주한테서} 오는 전화겠거니 하고 범상하게 생각하며 원탁 우에 놓여있는 전화기 곁으로 다가갔다.
《량남익: 기적소리는 계속 울린다》

북측 작품에서 찾은 예들이다. 남측에서는 저런 경우에 <세대주>라고 말하지 않는다. 어휘의 뜻은 비슷한데 그 쓰임이 다르니 말이란 참 신기한 존재 같다. 뜻만 가지고는 그 용법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니 사전에서 용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 순간이었다. 또한 앞으로 《겨레말큰사전》을 만드는 데 정말 많은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새삼 다짐을 한 순간이기도 했다.

비록 한두 어휘의 쓰임을 알았으나 이런 식으로 서로가 쓰는 말을 조금씩 알아간다면 어느 순간 언어의 통일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품으며 나의 첫 번째 회의 참석은 이렇게 끝났다.

손으로 쓰는 일기가 일기다



문정화 / 일산 백마고 교사

나는 몇 년 전부터 학급 아이들과는 돌림일기를, 학교 교사들과는 교단일기를 쓰고 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동료 교사들의 마음을 읽고 서로 어루만지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내 생각이다.

학급 일기는 우리반 급훈('바람개비는 바람을 기다리지 않는다.')을 따서 '팔랑팔랑 바람개비'라고 정하고 하루에 한 명씩 일기형식으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다음 번호 학생에게 넘긴다. 중간 중간에 돌려 읽고 댓글도 단다. 그리고 나도 아이들 일기를 읽고 같이 댓글도 달고 틈틈이 내 일기도 쓴다. 이 일기는 우리반 아이들끼리만 돌려 읽을 수 있다. 다른 선생님들도 이 일기는 읽을 수는 없다.

교단 일기는 아이들 문제, 교사로서 갖는 고민, 동료 교사나 관리자와 부딪치는 이야기들을 주로 쓴다. 이 일기 역시 선생님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려 읽고 댓글도 단다. 간혹 일기를 워드로 쳐서 노트에 풀로 붙이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다. 그런데 쓸 때도 읽을 때도 내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왠지 손 일기가 진짜 일기 같다.

아래의 글은 우리반 일기 중 일부이다. 아이들이 쓴 생생한 손맛과 내가 흘려 쓴 손맛을 그리고 색색의 펜으로 단 댓글의 손맛들을 보여주지 못함이 너무나 아쉽다.

<2010년 4월 7일 23번 이종민 일기>

날씨는 대머리 가발잡고 여자 애들 치마 잡게 바람 부는 날씨 ㅋㅋ

오늘은 일찍 자서일까? 무거운 아침을 가볍게 차버리고 일어났다. 요즘 아침에는 칫솔에 폼클렌징을 짤 정도로 정신없이 피곤했는데 한방에 다 날아갔다. 그래서인지 지각할까봐 숨차게 뛰어 등교를 해도 기분이 좋았다. 내가 잠한테 시간을 주면 잠은 나에게 활기를 준다. 활기를 가진 나는 반을 박차고 들어갔다. 하루를 준비하려고 사물함으로 가는데 지훈이가 보였다. 어제 머리를 자르고 왔나보다. 여러 생각이 스쳤지만 그냥 말을 아꼈다.

- ↳ -돈 주고 한 머리인가? ㅋㅋ
- 당당해 말해. ㅋㅋ
- 일명 귀두컷 ㅋㅋ

점심시간 운동장에 나갔는데 원래 축구하던 자리를 판 것들이 쓰고 있었다. 그래서 들어와서 공부를 했다. 안 되는 공부를 하려고 멍하니 책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나가 가위바위보 하자고 말을 걸어서 한번 웃었다. 역시 점심시간은 웃는 시간으로 써야 한다.

장우석이는 컴퓨터 시간에 하라는 건 안 하고 맨날 진영이 키 작다고 놀리면서 웃는다. 작을 수도 있지 웃기는 놈이다. 근데 웃기는 게 남일 같지 않다. 오늘 오후 집에 가는 길에 우리 반 여자 애들이 내 앞길을 막고 종민이 바보라고 노래를 불렀다.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 ↳ -너 내 동생 보다 작다.
- lady sound u-kiss
- 이거 아니라 brave sound
- 아닌데 좋아서 그래 ㅠㅠ
- 미안해 종민아 ㅠㅠ
- 헐...종민아 나랑 사귀자 ㅋㅋ 제발

오늘은 주엽역에 있는 한의원에 가려고 민수랑 같이 버스를 탔다. 가는 동안 민수가 우리반에 때려주고 싶은 애들에 대해서 얘기했다. 근데 민수는 우리반 애들을 다 때려줄 셈인가? 무서운 놈이다.

- ↳ -민수는 얼짱
- 니가 맞아 볼래?
- 맞아야 할 사람 누구?
- 너다 ㅋㅋ
- 참고 인내해라.
- 다행이다 나는 애가 아니질 않은가 담탱이

한의원에 비염치료를 받으러 갔다. 치료 받으러 온 꼬마들과 '짱구는 못 말려'를 봤다. 내용은 짱구네 이웃집 누나가 이사를 가서 이별하는 내용이었다. 슬펐다. 그걸 보면서 일요일에 이사를 가신 할머니 생각이 들었다. 만화 속에서처럼 동네 이웃들은 할머니가 이사 가시는 것을 배웅했고 할머니는 그렇게 이사를 가셨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이별은 만화 속에서의 이별보다 더 슬펐다. 텅 빈 집과 텅 빈 공간과 함께 사라진 존재. 그런 허전함을 만화는 담지 못할 것이다. 이사 가시기 전 날, 할머니와 엄마 두 분은 함께 밤을 보냈다. 그 긴 밤이 얼마나 짧았을지 나는 모른다. 하이킥의 세경이처럼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엄마와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른 집에 살더라도 같은 동네에 살며 서로 의지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눈물을 보이셨다. 엄마는 할머니가 이사 가신 저녁 조용히 우시며 잠드셨다. 떠나는 것과 보내는 것은 이렇게 슬픈가 보다.

오늘 한의원을 다녀 온 후에 엄마와 저녁밥을 먹었다. 우리는 할머니가 해 주신 잡채를 먹었다. 그 잡채는 이사 가시기 전에 해 주신 잡채인데 유난히 면이 푹푹 끊어져 있었다. 엄마는 이제 잡채 먹고 싶을 때 엄마가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갈 때도 가스 불 켜고 나가지 않게 더 조심해야겠다고 하시며 계속 할머니 얘기를 하셨다. 내 생각보다 엄마가 할머니를 많이 의지하고 살아오셨나 보다. 문득 내가 이 집, 이 동네를 그리고 이 품을 떠날 때를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가족과 친구와 이별한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 느껴진다. 처음에 학급 일기를 쓴다고 했을 때 쓰기 싫고 저걸 얼마나 오래 쓰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 차례가 오니까 뭘 쓸지 막막했다. 근데 막상 펴니까 괜찮은데ㅋㅋ 좋다.

- ↳ -이종민은 진짜 글 솜씨가 뛰어나다.
- 순수 종민 이종민 우유 빛깔 이종민
- 슬픈 일기다.
- 야, 이종민 다시 봤당!
- 읽으면서 종민이를 다시 발견한 느낌이다. 아, 이 일기 너-무 좋다.
- 감동적인 일기당!

나는 워드로 깔끔하게 정돈된 글보다 손으로 푹푹 눌러 쓴 일기, 삐뚤삐뚤 쓴 반성문 속에서 여전히 아이들을 읽고 있다.

요즈음은 자율학습시간 직접 손으로 책장을 넘기며 연습장에 단어를 써가며 공부하는 녀석들을 찾기가 참 어렵다. 무슨 약자인지도 모른 채 사용하고 있는 DMB, PMP, MP3로 인터넷 영상 강의를 듣거나, 전자사전, 핸드폰의 버튼을 눌러 단어를 찾으며 공부한다. 아예 더 나아가 깡00 기계를 노려보며 눈으로 깜빡깜빡 단어를 읽는다. 아이들은 이미 빠르고 편한 속도감에 익숙해져, 책장을 넘기는 즐거움은 헌납한 지 오래다. 빠르고 편하니 그럴것지 생각하지만 사전에 손때 묻히며 침 묻히며 공부하던 때와 뭐 그리 좋아졌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세월이 흘러 자기 앞에 하나씩 더 빠르고 더 다양한 기계를 두고 아이들이 그 기계 속 문학 작품을 읽을 생각을 하면 나는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다.

워드로 깔끔하게 정돈된 글보다 손으로 푹푹 눌러 쓴 일기, 삐뚤삐뚤 쓴 반성문 속에서 나는 아이들을 읽고 싶다. 그리고 나 역시 내가 흘러 쓴 글씨 속에서 아이들이 내 마음을 읽게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가 정작 읽지 않아야 할 그 무엇..... 나는 그것을 아이들과 미련스럽게 지켜 나가고 싶다.

한컴오피스 2010 , 편찬 사업회 지원

편찬사업회는 편찬 연구 및 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한컴오피스 2010'을 (주)한글과컴퓨터(대표 김영익, 이하 한컴)로부터 지원 받았다.



▲ 한컴오피스 2010

한컴은 남북의 사전편찬 전문가, 언어학자, 문학인 등이 참여해 진행 중인 '거래 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위해 '한컴오피스 2010' 총 40카피를 전달했으며, 이는 편찬사업회의 거래말큰사전연구 및 기타 업무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한컴오피스 2010' 지원은 지난 2007년 한컴이 편찬사업회에 증정한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에 이어 두 번째로 지원되는 것이다. 그동안 '거래 말큰사전'에는 2007년도에 지원한 '한글과컴퓨터 한글2007'이 사전 편찬에 필요한 문서 작성 및 집필 작업 등에 적극 이용되었다.

이번에도 워드프로세서인 '한컴오피스 한글'을 비롯해, 스프레드시트인 '한컴오피스 한셀',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인 '한컴오피스 한쇼'를 포함한 '한컴오피스 2010'이 지원되었다. 한컴은 '거래 말큰사전' 편찬이 완료되는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최신 버전의 오피스 업그레이드와 기술지원을 약속하였다.



▲ 2007년 한컴 소프트웨어 지원 협약 체결 장면